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LA 오토쇼'에 참가, 신차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이오닉9, EV9 GT, 제네시스 브랜드 라인업.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기아, 신차 앞세워 美 시장 공략 나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신차를 앞세워 미국 본토 시장 공략에 나섰다.

25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LA 오토쇼'에 참가, 신차를 공개했다.

◇E-GMP기반 전동화 대형 SUV...수소전기차 방향성 담은 콘셉트 모델

현대차는 '아이오닉 9'를 공개하고 '이니시움'을 북미 시장에 최초로 선보였다. 아이오닉 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에 기반한 현대차의 세 번째 모델로, 글로벌 전동화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강화해 갈 대형 SUV 모델이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각) 미국 LA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아이오닉 9의 최초 공개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9를 공개하며 모터쇼 현장을 찾은 글로벌 미디어 및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이오닉 9는 E-GMP를 기반으로 11

0.3kW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532km 주행 가능하다.(* 19인치 휠 2WD / 연구소 측정치 기준) 또한 350kW급 충전기로 24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됐다.

아이오닉 9는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뉜다. ▲후륜 모터 기반 2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3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 19인치 휠 / 연구소 측정치 기준)

▲전·후륜 모터 기반 4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8kW, 최대 토크 605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3km이다. ▲전·후륜 모터 기반 4WD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로 뛰어난 성능을 확보했다. (* 21인치 휠 / 연구소 측정치 기준)

아이오닉9·EV9 GT 등 플래그십 'LA 오토쇼' 참가 모터쇼 현장 찾은 글로벌 미디어·고객 시선 집중

이와 함께 이번 LA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지난 27년간의 수소에 대한 오랜 신념과 의지를 집약해 탄생시킨 수소전기차(FCEV)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북미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승용 수소전기차의 상품과 디자인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전동화 SUV만의 세련된 감성 강조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LA 오토쇼'에서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외장 디자인 ▲한국

적인 '여백의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하 이테크한 감성이 더해진 실내 공간 ▲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위한 다양한 감성·편의 사양을 갖춘 차량이다.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MLA(Micro Lens Array) 기술이 적용된 헤드램프로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완성했으며, 두 줄로 디자인된 후면부 방향지시등, 두 줄의 크롬 가니쉬 범퍼 하단부 등의 요소로 제네시스만의 두 줄 콘셉트를 극대화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12월1일(현지시각)까지 진행되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비롯해 G70, G80, G90, G

V60, GV80, GV80 쿠페 등 브랜드 전 라인업을 전시한다.

◇플래그십 전기 SUV EV9 고성능 진화...첫 전용 전기차 EV6 디자인 혁신

기아는 북미에서 고성능 전기차(EV) 'The Kia EV9 GT'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의 신규 모델을 선보이며 현지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기아는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의 고성능 버전인 'EV9 GT'를 포함해 신규 EV 모델을 공개하며 전동화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된 '더 기아 EV9 GT'는 2023년 출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 받아온 전동화 대형 SUV 'EV9'의 고성능 모델이다.

더 기아 EV9 GT는 160kW 급의 전륜 모터와 270kW 급의 후륜 모터로 구성된 듀얼 모터 조합을 통해 최고출력 508마력(ps)의 동력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EV6'도 북미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EV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2023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의 정상에 오르며 호평 받았던 EV6는 강화된 상품성과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내년 봄 북미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더 뉴 EV6는 기아의 신규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주행등(DRL)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장 후면부는 리어 콤파니이션 램프로 와이드한 스타맵 라이팅을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강화했다.

이날 기아는 LA 오토쇼에서 미국 내 판매 1위 모델인 스포티지의 새로운 진화도 알렸다. '더 뉴 스포티지'는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과 첨단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

티에리 누빌 1위...명실상부 모터스포츠 강자 등극

현대자동차가 2024시즌 WRC에서 팀 역사를 새로 쓰는 기록을 작성하며 명실상부 모터스포츠 강자로 등극했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 열린 2024 WRC(World Rally Championship) 마지막 라운드를 끝으로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WRC 일본 랠리는 2004년 훗카이도에서 시작해 2010년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2시즌에 복귀했다. 이전에는 훗카이도를 무대로 비포장 도로를 달렸던 '그레이블 랠리'였다면 지금은 일본 중부 아이치현과 기후현

의 포장도로를 달리는 '타막 랠리'로 바뀌었다.

좁은 길과 많은 코너로 악명이 높은 일본 랠리는 산악 지역의 아스팔트 도로가 유럽에 비해 좁고 구불구불하며 낙엽이 덮인 구간에서는 점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높은 수준의 주행 실력이 요구되는 랠리다.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한 현대 월드랠리팀 티에리 누빌

선수는 안정적인 주행으로 무난히 랠리를 완주하며 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확정하고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올 시즌 총 6번의 포디움에 올라간 티에리 누빌은 선수 경력 사상 처음으로 시즌 드라이버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선수가 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차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임채만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WRC 일본 랠리 후 드라이버 우승을 차지한 티에리 누빌(차 위 앞 줄 오른쪽) 선수·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급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럭셔리 중상급자용

초보 입문자용

A9 Nice Shot

A100 Nice

A5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1,180,000

소비자가격 ₩ 1,380,000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헤드	단봉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